

# 모리셔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9.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의견 .....	11

## I. 일반개황

면적	2,040천km <sup>2</sup>	GDP	116억 달러 (2015년)
인구	1.26 백만 명(2015년)	1인당 GDP	9,218 달러 (2015년)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Mauritius Rupee (MRs)
대외정책	친서방 자유주의	환율(달러당)	35.06MRs (2015년 평균)

- 모리셔스 공화국은 아프리카 남동부 인도양에 위치한 우리나라 제주도과 비슷한 면적의 섬나라로, 수도는 포트루이스(Port Louis)임. 17세기 초에는 프랑스인이 동부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리고 와서 사탕수수를 재배함. 1814년 이후에는 영국령으로 귀속된 후, 196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음.
- 영국 지배 당시 많은 인도인이 이주해 오는 등 역사적, 지리적으로 인도와 가까우며, 전체 주민의 68%가 인도인임. 이 밖에 흑인 크레올계(27%), 중국인, 프랑스계 등으로 구성됨.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이나, 국민의 대다수는 크레올어를 사용함. 종교는 힌두교(52%), 무슬림(17%), 기독교(30%) 등으로 구성됨.
- 개방형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2015년 1인당 GDP는 9,218 달러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3위임. 열대해양성 기후에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춘 국가로, 주요산업은 제조업(섬유 중심), 관광 관련 산업, 금융 서비스업, 농업(사탕수수 중심) 등임.
  - \* 산업구조(GDP 비중) : 제조업(24%), 부동산·건설업(19%), 호텔/식당(7%), 금융서비스업(12%), 농업(4.6%)
-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이며, 의회는 단원제로 총 70석으로 5년마다 보통 선거가 실시됨.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며, 국회의 다수결로 선출됨. 현 대통령은 2015년 7월 선출된 Ameenah Gurib-Fakim이며, 총리는 Sir Anerood Jugnauth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2017 <sup>f</sup>
경제성장률	3.2	3.2	3.6	3.4	3.7	3.9
소비자물가상승률	3.9	3.5	3.2	1.3	1.5	2.1
재정수지 / GDP	-1.8	-3.5	-3.2	-3.8	-4.0	-3.7

자료: IMF, EIU

#### □ 2016년 전년과 유사한 3%대 성장률 전망

- 2016년 상반기에는 유럽 경기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모리셔스의 경제 성장률은 2016년 3.7%로 2015년(3.5%) 대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모리셔스는 수출 및 투자, 관광객의 절반 이상을 유럽에 의존하고 있음.
  - \* 국가별 수출 비중 : 프랑스(15%), 영국(14%), 미국(11%), UAE(11%) 등
  - \* 2016년 상반기 모리셔스를 방문한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는데, 이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그러나 2016년 7월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경제가 둔화될 경우, 성장률이 소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잠재함.
  - 브렉시트 결정 직후, 모리셔스 중앙은행은 2016년 자체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6%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주요 정책금리인 Repo rate을 4.4%에서 4%로 하향 조정하여 경기하향 위험에 선제 대응하였음.
- 산업별로는 관광·금융·ICT 등 서비스 부문의 성장률이 정부의 중점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2015년 4.6%를 기록하는 등 모리셔스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음.

- 반면, 제조업 및 건설 분야는 낮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제조업은 섬유 분야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에 따라 미국시장 진출시 세제 혜택 등을 받고 있으나,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로 인해 성장률이 더딘 편임. 또한, 건설 분야도 민간 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낮음.

#### □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적자폭은 단기적으로 소폭 확대될 전망

- 교육, 건강 분야에 대한 복지지출과 2015년 말 발표된 저임금 공공노동자에 대한 임금 상향으로 2016년 중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도로, 전력 등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 계획은 관료주의적 행정 절차 및 자금 제약\*으로 실행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4%로 전년대비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 모리셔스 정부는 2018년까지 중앙정부 부채를 GDP의 50% 이하로 축소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받고 있음

#### □ 유가 및 상품가격 하락으로 낮은 물가상승률 유지

- 모리셔스는 식량과 연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과 국제 상품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 모리셔스 정부는 이러한 영향을 일부 감소시키기 위해 '석유가격 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유가 및 상품가격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2016년에도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전망이다. 복지지출 및 통화가치 약세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1.5%대의 물가상승률이 전망됨. 2017년 이후부터는 글로벌 상품가격 회복과 함께 물가상승률도 2%대로 상승할 전망이다.
- 한편, 모리셔스 루피의 통화가치는 유로화 가치를 따르는 경향이 큼. 2016년 중 유로화 가치가 달러대비 약세로 전망됨에 따라, 모리셔스 루피화의 환율도 2015년 말 35.1MR/\$에서 2016년 말 35.8MR/\$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소규모 개방 경제로 세계 경기 변동에 민감

- 모리셔스 경제는 소규모 개방 경제로, 세계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함.
  - 특히 수출·투자·관광 등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기 변동에 크게 좌우됨.

#### □ 사탕수수 가격, 조세회피 관련 이슈 등의 영향

- 농업 분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사탕수수 가격 추세도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과거 사탕수수 재배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1980년대 사탕수수 가격 하락으로 큰 타격을 받은 이후 현재는 관광, 금융, 섬유 산업 분야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모리셔스는 역외금융이 발달하였는데, 이는 자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면세 및 각종 투자 혜택으로 선진국 기업들에게 조세회피처나 인도 등 다른 나라에 투자하기 위한 중간 경로로 이용되기 때문임.
  - 그러나 최근 유출된 '파나마 페이퍼'(Panama Papers)의 조세회피자 명단에 모리셔스의 역외기업인 영국계 석유회사 Heritage Oil 등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리셔스의 역외금융 산업에 부담이 되고 있음.

### 나. 성장 잠재력

#### □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 모리셔스는 세계은행의 2016년 'Ease of Doing Business'에서 전 세계 32위를 차지하여, 아프리카 국가들 중 1위를 기록함.
  - 이는 31위인 UAE의 바로 다음 순위이며, 남아공(73위), 사우디(82위) 등 중동·아프리카 주요 국가들보다 높은 순위임.

- 향후에도 투자 유치를 위한 면세혜택,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 양호한 정보통신기술 발달 수준

- 모리셔스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 Readiness Index) 순위에서 139개국 중 49위로 아프리카 국가들 중 1위를 기록,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이는 모리셔스 정부가 ‘싱가포르’ 모델을 따라 모리셔스를 기술통신 허브로 육성하여, ICT 산업을 모리셔스의 ‘제5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에 힘입은 것임.

다. 정책동향

□ 소득불평등 개선 정책 시행

- 2014년 말 민간 부문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이어, 2015년 후반 공공 부문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법정 임금 상승 및 복지 강화를 발표하는 등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중임.

□ 교육 및 인프라 투자 강화, 해양산업 종합 개발 추진

- 모리셔스를 연구·혁신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당국의 의지에 따라, 교육 및 관련 인프라 투자가 정책적으로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전망이다.
- 또한 이른바 ‘Ocean Economy’ 전략에 따라, 어업, 수산물가공, 항만 인프라, 해양 조사 등 종합적인 해양산업 발전을 추진 중임.

□ 공공자산 매각을 통한 정책자금 조달 계획 전망

- 모리셔스 정부는 소득불평등 개선, 인프라·교육 투자, 해양산업 및 ICT 산업 육성 등의 정책 이행을 위한 지출이 필요하나, 현재 GDP의 64% 수준인 정부부채를 2018년까지 GDP의 50% 수준까지 낮추도록 법적 규제를 받고 있음.

- 따라서 부채를 늘리는 대신 공공자산 매각, 복지·연금 개혁 등이 정책 자금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복지·연금 개혁조치는 상당한 반발이 우려되는 바, 현실적으로 공공자산 매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 인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이 자본유입에 미칠 영향

- 2016년 5월 인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개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모리셔스를 경유하여 인도로 투자하려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음.
  - 개정 전 인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하에서는 모리셔스의 역외기업이 인도에서 자산투자 후 매각하더라도 자본소득세가 면제되었음.
  - 이를 이용하여 인도 기업들도 자국 앞 조세 회피를 위해 모리셔스를 경유한다는 의혹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인도 당국은 조세 수입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모리셔스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요구해 왔음.
  - 이와 함께 2016년 4월 ‘파나마 페이퍼’ 스캔들 등 조세회피처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증가하면서, 결국 2016년 5월 모리셔스는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에 합의하였음.
  -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모리셔스의 역외기업이 인도에 투자 후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2017년 3월까지의 현행대로 자본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2019년 3월까지의 50% 적용되고, 이후부터 100%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인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은 과거 몇 년 동안 논의된 사안으로, 외국자본 유입에도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당분간 자본 유입의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세부 개정 내용 등에 따라 향후 그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 3. 대외거래

&lt; 표 2 &gt;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2017 <sup>f</sup>
경 상 수 지	-753	-713	-590	-537	-586
경 상 수 지 / G D P	-6.3	-5.6	-5.1	-4.5	-4.6
상 품 수 지	-2,270	-2,260	-1,844	-1,871	-2,082
수 출	2,869	3,094	2,684	2,662	2,888
수 입	-5,139	-5,354	-4,528	-4,533	-4,970
외 환 보 유 액	3,491	3,919	4,260	4,506	4,698
총 외 채 잔 액	3,261	3,318	3,388	3,408	3,441
총 외 채 잔 액 / G D P	27.3	26.3	29.2	28.7	27.3
D S R	4.0	4.9	3.8	4.6	5.2

자료: IMF, EIU, OECD.

## □ 상품수지 적자 및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 감소

- 상품수지는 2015년에 이어 2016년 석유 및 식량 수입가격 하락으로 적자폭이 다소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경상수지 적자폭도 다소 감소하여 2016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4.5%로 전망됨.
- 모리셔스는 금융·통신·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성장으로 2015년 기준 약 6억달러 수준의 서비스 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아울러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인도 등에 투자하기 위한 중간 경로로 모리셔스를 이용함에 따른 투자 과실 등에 기인하여, 본원소득수지도 2015년 기준 약 9억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17년 이후에는 상품 수입가격의 반등으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 **FDI의 꾸준한 유입 및 민간 부문의 차입으로 외환보유고 증가**

-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금융 산업 중심)의 꾸준한 유입 및 민간 부문의 차입 등으로 외환보유고는 소폭 증가함.

\* FDI 유입액(백만 달러) : 589('12) → 259('13) → 418('14) → 208('15)

- 다만, 2016년 5월 개정된 인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한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 향후 자본유입 감소로 외환보유고 및 환율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외환보유고 감안시 외채잔액은 지속가능한 수준**

- 2015년 말 외환보유고가 45억 달러로 총외채 잔액(34억 달러)을 초과하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도 30% 미만으로 양호한 수준임.
- 정부 부채는 2015년 GDP 대비 60% 내외로 다소 높은 편이나, 대부분 국내 조달되어 70% 이상이 국내통화표시이며, 외채 비중은 낮은 수준임.

### Ⅲ.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연립 여당의 굳건한 지지기반으로 전반적인 정치적 안정성 양호**

- 2014년 12월 총선 결과, Anerood Jugnauth 국무총리의 아들 Pravind Jugnauth가 이끄는 3당 연립 Alliance Lepep\*이 우위를 점함에 따라, 차기 선거가 예정된 2019년 말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 연립 여당 Alliance Lepep\*이 51석을 차지하고, 주요 야당으로 MAM (Mouvement Militant Mauricien)이 12석, Labor Party가 4석을 차지함.

\* Mouvement Socialiste Militant (MSM), Parti Mauricien Social Démocrate (PMSD), Muvman Liberater(ML) 3당으로 구성

- 또한 Anerood Jugnauth(85세) 총리는 1982년 이후 총 27년간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등 경험이 풍부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정치적 실용주의에 기반해 이루어진 3당 연립은 내부적으로 MSM과 PMSD 사이의 갈등이 지난 몇 년간 지속되고 있어, 진정한 통합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
  - 연립여당의 내분을 의식하여 Anerood Jugnauth 총리는 지난 3월 개각에서 재무장관을 해임하고 자신의 아들인 Pravind Jugnauth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바, 총리가 여러 임무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경제적 불평등 심화 및 생활수준 저하에 따른 사회적 불만 증가

- 현재의 재정 위축 및 지지부진한 경제성장률 회복 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감안할 때, 경제수준 저하 및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으로 인한 간헐적인 시위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이러한 사회적 불만 및 정치적 내분 등이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3. 국제관계

### □ 유럽, 미국 및 인도, 중국 등과 협력 강화

- 수출시장 확보, 투자 유치를 위해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최근에는 이들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 중국 및 아프리카 신흥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모리셔스는 인도 앞 최대 투자국으로, 이는 선진국들이 조세회피처인 모셔스를 경유하여 인도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임.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2015년 인도의 모디 총리는 모리셔스에 5억 달러 상당의 무상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함.

- 중국과의 관계도 2016년 초 수많은 자금·기술 지원 관련 협정들이 체결되고, 모리셔스의 중국인 관광객이 2000년대 중반 약 5천 명에서 2015년 약 9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긴밀해지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국제시장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B2 (2016. 2)	B2 (2014. 7)
OECD	3등급 (2016. 6)	3등급 (2015. 6)
Moody's	Baa1 (2016. 5)	Baa1 (2016. 5)

\* OECD 등급 원용

※ 동국은 S&P, Fitch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1. 7. 3 (북한과는 1973. 3. 20 수교)
- 주요협정: 문화협정('91),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협정('08)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6년 6월말 기준 12건, 103,475천 달러(누계기준)
- 교역규모

**<표 4> 한·모리셔스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7	주요 품목
수 출	46,914	49,992	37,618	16,398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수 입	6,369	5,462	4,620	2,973	의류, 어류, 건전지 및 축전지
교역규모	53,283	55,454	42,238	19,371	-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 의견

- 인도양에 위치한 모리셔스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국가이자, 아프리카에서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OECD 3등급 국가로, 1인당 GDP는 약 9천 달러임. 주요 산업은 제조업(섬유 중심), 관광업, 금융서비스업, 농업(사탕수수)이며, 특히 각종 면세 및 투자 혜택 등으로 역외산업이 발달하였음.
- 소규모 개방형 경제 구조로 세계 경기 변동에 민감하며, 특히 수출과 투자, 관광객 등의 절반 이상을 유럽에 의존하고 있음. 유럽 경기가 2016년 상반기에는 다소 회복하였으나 7월 브렉시트 이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모리셔스의 2016년 경제성장률도 2015년과 유사한 3%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 모리셔스는 석유 및 식량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여 상품수지는 적자이나, 금융·관광 등 서비스 수지 흑지와 인도 등으로의 투자소득 등이 상품수지 적자를 상쇄하여,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5% 내외로 유지되고 있음.
-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30% 미만으로, 외환보유고 수준을 감안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다만, 2016년 5월 인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으로 향후 자본 유입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치적으로는 2014년 12월 총선 결과 연립 여당이 우위를 점함에 따라, 차기 선거가 예정된 2019년 말까지는 전반적인 정치적 안정성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불만으로 간헐적인 시위 발생 가능성이 있음.

책임조사역 고영애(☎02-6255-5720)

E-mail : kya321@koreaexim.go.kr